

♡킬링 허니♡

♡ KILLING HONEY ♡



W. 백슈

세션카드 커미션 ♦ 나룬님 (@NARooN_C)

약칭 ♦ 허니킬

최종 수정일 ♦ 2023.02.20

“자기야♡ 아직 살아있어~?”

<개요>

서로를 노리는 킬러 부부의 달콤살벌 결혼생활!

킬러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죽고 죽이는 데스매치 속에서 상대를 냉혈 하게 처리해 낸 자만이 살아남죠.

자, 여기 그 혹독한 세계에서 탑클래스 실력으로 자리매김한 탐사자가 있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직장인 1. 하지만 그 이면은 총알이 빗발치는 아수라 속에서도 상처하나 입지 않고 타겟을 섬멸해 내는 무자비한 킬러!!

그런 탐사자의 다음 타겟은... 네? 평범하디 평범한 나의 사랑, KPC라구요??

앗, 그를 평범하다고 설명하다니. 제 실수예요.

그도 그럴 것이, KPC는 당신과 명성을 같이하는... 라이벌 조직의 에이스 킬러니까요!!

당신에게 진짜 직업을 속인 것은 과썸하지만,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썸은 통치고 넘어가 줄 수 있죠.

게다가 이토록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KPC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요!

하지만,

탕—!

꺾가를 스친 것은... 당신의 허니 KPC가 쏜 총알입니다.

“자기야♥ 아직 살아있어~?”

시나리오 정보

- 크툴루의 부름(Call Of Cthulhu) 7판 룰 기준
- 인원 1:1 타이만
- 형식 레일로드
- 배경 현대
- 플레이 시간 ~3시간+α (RP에 따라 몹시 유동적)
- 플레이 난이도 ●○○○○
- 키퍼링 난이도 ●●○○○ (즉흥 구간 있음)
- 추천 기능 대인기능 등
- 전투 요소 있음
- 로스트 요소 없음
- 추천 관계 상호 소중한 관계
- 테스트 플레이 完

주의사항

- 기본 [공지사항](#)을 꼭 숙지해 주세요.
- ♡킬링♡ 시리즈의 1부입니다.
- 탐사자, KPC의 직업이 킬러로 고정됩니다. 시나리오 한정으로 근접,사격 기능치가 85로 고정됩니다.
- 킬러라는 직업 때문에 범죄 미화적인 요소가 사용됩니다. 불편하시다면 플레이를 재고해 주세요.
- 시나리오 내에서 서로에게 총을 쏘는 상황이 나옵니다. 성향상 불가능할 시 '권태기'라는 설정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 전투에 관한 독자적인 룰이 있습니다.
- 시나리오 내 기믹 등, 스포에 관련한 내용은 언급, 배포하지 말아 주세요.
- 시나리오 내 세계관의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재량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에 관한 질문 받지 않습니다.

공지

◆ 영화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 내용을 각색, 오마주한 로맨스 코미디 풍 시나리오입니다. 옛 영화이지만 무척 재밌으니 영화 또한 추천드립니다 :) 아래로 오마주 한 부분이 나열됩니다. 스포성이 있어 보길 원치 않은 분들을 위해 가려두었으며, 드래그 하면 보이십니다.

- ‘킬러 부부’ 설정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 [REDACTED]

탐사자 정보

- ◆ 조직의 에이스 킬러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모든 정보는 기밀이며, 조직 내에서도 탐사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결혼했다는 사실과 배우자에 관한 정보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 KPC에게 킬러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다른 직업을 가진 척 살고 있습니다.



**이후 시나리오의 진상과 본문이 시작됩니다.
KP 예정인 분들만 열람해 주세요.**

진상

이익을 위해 기꺼이 사람까지 죽이는 조직은 이 세상의 ‘악’이란 ‘악’은 전부 모아둔 집합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의 화신 가타노토아(룰북.311p)가 이들에게 접촉하는 것 또한, 마치 순리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가타노토아에 잠식된 수많은 조직 중, 인접한 곳에 위치한 두 조직이 있었으니. 바로, KPC와 탐사자가 속한 조직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KPC와 탐사자가 사교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야 자유를 잃은 가타노토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는 각 조직의 보스들 뿐이었으니까요.

세상의 ‘악’을 씹어 삼켜 자유를 되찾고 싶었던 가타노토아는 조직들이 벌이는 지리부진한 ‘악’보다 더 거대한 에너지를 원했습니다. 그야말로 강하고 순수한 악.

그 제물에 적격인 자들은 역시, 강력한 신체 능력과 사람을 서슴없이 해치우는 악을 지닌 KPC와 탐사자겠죠. 때문에 두 조직의 보스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이 강력한 둘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긴 고민 끝에 그들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아아! 서로가 서로를 해치우도록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제물로 낙점된 두 사람은 서로의 정보가 담긴 타겟 프로필을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보스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 사이였다는 점이죠!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들의 계획이 참 험난해 보이죠?

과연, 이들은 KPC와 탐사자를 무사히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빗발치는 총격 속에서도 사랑을 꽃피우는 KPC와 탐사자에게 달려있겠네요.

KP 정보

- ◆ 로스트 없는 단일 엔딩 스토리입니다.
- ◆ 시나리오 한정으로 탐사자와 KPC의 공격 기능치가 85로 고정됩니다.
- ◆ KPC와 탐사자는 탈인간급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상처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낫습니다.
- ◆ 플레이 전, 탐사자와 함께 아래의 설정을 정하고 서로 공유해 주세요.

1. 서로의 가짜 직업
2. 각자 무기 숨겨놓을 장소 3군데 ([MAP, 무기 정보 참고](#))
3. 서로의 추억이 담긴 물건 혹은 선물 2~3개
4. 신혼여행지

KPC 정보

진상에 설명된 것을 기본으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 KPC는 탐사자가 타겟이 되자, 조직의 추적을 막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후 둘 다 죽은 것으로 위장해서 탐사자와 도망치려 합니다. 조직이 도청기 등으로 듣고 있을 것을 염두해, 이 사실을 숨긴 채 일부러 탐사자에게 충을 쏘 도발해서 싸우는 척 연기합니다.
- ◆ KPC는 반드시 신체 한 군데에 탐사자가 준 선물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납치되었을 때 그 안에 숨겨둔 칼날로 탈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x: 예물 시계, 팔찌, 귀걸이 등등)
- ◆ KPC가 숨기는 무기 중 하나는 화염 방사기를 추천드립니다. (집에 불을 지를 때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함이지만 불을 지르는 다른 방법도 있기에 필수는 아닙니다.)

MAP, 무기 정보

- ◆ 각자 겹치지 않은 장소에 무기를 숨겨둘 수 있습니다. 무기의 종류도 함께 정해주세요.
- ◆ 총 3군데에 숨겨둘 수 있으며, 신체도 1군데로 포함합니다. (ex: 허벅지에 단도, 안방 침대 밑에 권총, 서재 책장 뒤에 라이플 = 3군데) 단, 신체에 총기를 숨겨둘 순 없습니다.
- ◆ 무기의 화력과 종류는 집을 통째로 날려먹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킬링 허니♡ HOUSE MAP



【Chapter 1】

- 시나리오는 스토리 위주로 적혀 있으니, RP 구간은 KP 재량으로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 정보성 지문이 많습니다. RP로 바꿔서 사용하시거나 적절히 가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 시나리오에 서술된 KPC 행동 묘사와 말투는 KPC의 성향에 따라 개변해 주세요.

탐사자와 KPC.

서로 부부의 연을 맺은 지도 벌써 n 년입니다.

우리가 해 온 사랑은 어땠는지 기억나나요, 탐사자? 발렌타인 초콜릿처럼 달콤했을까요? 우유에 적신 진저쿠키처럼 씹싸름했으려나? 어쩌면 혀끝을 아릿하게 마비시킬 정도로 매콤했을까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지난 사랑은 각기 다르게 기억하더라도, 우리의 첫 순간만큼은 분명 같은 맛일 거예요. 그야말로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명적인 만남이었으니까요.

사회자 : “XXXX 자선 파티에 오신 내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대에 떨어진 스포트라이트가 사회자를 향하다 곧 홀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동시에 무수히 비추는 각각의 조명들이 귀품 있는 이들의 면면을 스치며 빛의 춤을 춥니다. 샹들리에에 무수히 달린 섬세하게 세공된 유리조각이 그 빛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우리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황홀경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처음 본 사이였지만, 허공에서 시선이 닿자 같은 생각을 했죠.

아, 이 사람은 내 운명이라고.

비록 장소와 상황이 운명이란 단어에 섞어내기에 조금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야 그럴 것이, 탐사자 당신은 XXXX 자선 파티에 참석한 타겟을 처리하기 위해 잠입했던 거잖아요?

(KPC도 킬러로서 일하기 위해 잠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당신의 임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히 강력했죠.

KPC : “...골라봐. 알코올, 댄스, 캔디(마약을 뜻하는 은어). 어떤 게 좋아?”

(KPC의 대사는 예시일 뿐입니다! 흔치 않은 플러팅으로 좋은 대사가 있다면 무엇으로든 개변하셔도 좋습니다.)

시선을 놓지 않고 다가온 KPC가 당신에게 건넨 첫마디였어요. 흔한 플러팅이 아닌, 살짝 색다른 인사법. 이름이나 직업부터 대뜸 묻는 것이 아닌, 조금은 감미롭고, 약간은 아슬아슬한. 당신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엔 이보다 더 매력적인 대사는 없었을 거예요.

(첫 만남 RP를 하시며 즐겨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KPC와 함께 하는 것은 그 무엇도 빠짐없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서로의 발끝을 맞춰가며 춤을 추는 것이나, 오로라 빛으로 감싼 글라스에 색이 예쁜 칵테일을 담아 잔끼리 키스하는 것이나, 사람이 드문 테라스 별빛 아래에서 위태롭게 호흡을 섞고 서로의 향을 탐미하는 것까지….

(서로 즐긴 것으로 마음껏 개변해 주세요.)

물론 프로 중의 프로인 탐사자는 그 열락 속에서도 타겟을 정교하게 처리해 냈죠. 평범한 일반인인 KPC로선 절대 모를 일이지만요.

여하튼 견잡을 수 없이 들이닥친 KPC라는 운명은, 그 사랑은,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 결혼이라는 충실한 결실을 맺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결혼생활은 어땠을까요?

당신의 이면엔 세계 탑클래스 킬러라는 명성이 자리하고 있지만, KPC 앞에서 만큼은 철저히 평범한 직장인을 연기했습니다. 완벽한 살인을 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면부터 외면까지 전부 꾸며낼 수 있던 당신이었기에. KPC는 여태 당신이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심성 고운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걸요? 그러니 진짜 정체가 들통나는 일만 조심하면 다른 건 문제 될 것이 없었어요. 둘은 그 어떤 부부보다 열렬했으니까.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탐사자. 이대로라면, 우리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네버엔딩일 거예요.

오늘은 그런 우리의 평범하디 평범한 아침입니다. 식탁 위엔 간단히 구운 베이컨과 스크램블, 아직도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케첩 데코레이션까지 담긴 식사가 놓여 있네요. 자, 그럼 KPC와 평범하게 밥을 먹고 평범하게 출근해 볼까요?

< 아침 식사 RP 예시 >

- 탐사자의 업무에 대한 질문 (ex: 오늘 퇴근이 언제인지, 오늘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직장 동료와 있던 불화는 어떻게 해결 됐는지 등등 탐사자가 변명할 수 있게끔 지어서라도 질문해 주세요.)
- 나는 오늘 외근이 있을 것 같다.
- 둘 다 퇴근을 제때 한다면 저녁을 같이 먹자.

오늘도 지극히 평범하고 다정한 아침식사였습니다. 각자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 앞에서 장난 어린 입술을 두어 번 맞추면 우리의 출근 루틴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각자 차를 타고 저녁에 보자며 인사를 한 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멀어집니다.

KPC는 당신이 이 길로 회사(탐사자가 가짜로 정한 직업)에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이 킬러라는 비밀은 유효한걸요? 부르릉—, 신속하고 명쾌한 엔진음은 탐사자를 공원으로 안내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평일이라 조깅하는 사람만 드문드문 지나다니는 여유로운 공원 한복판. 익숙하게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곳에 앉아있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한참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강아지와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을 그때, 당신 옆으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조직원 ‘A’ 입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추후 엔딩에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므로, 되도록 이름을 알려주고 각인시켜 주세요.)

조직원A : “안녕하세요. 탐사자 씨. 잘 지내셨나요?”

아, 당신에게 늘 타겟 명단을 넘겨주는 직원 ‘A’네요. 그가 당신 옆에 앉으려 다가오다가… 휘청!
하더니 불안간 당신의 무릎 위로 엎어지고 맙니다.

(탐사자에게 위치발신기를 붙이기 위한 연기입니다.)

조직원A : “으앗. 죄송합니다…! 요즘 업무 때문에 잠을 못 잤더니… 실례했습니다.”

평소에도 조금 덜렁이던 그였기에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몸을 일으키는 걸 도와주자 그는
연신 감사를 표하며 겨우 자리에 앉습니다.

(이후 대화하며 탐사자의 뛰어난 킬러 실력을 추켜세워 주세요.)

조직원A : “지난번 임무는 정말이지 신의 솜씨라고밖에 할 수 없을 일처리였습니다. 조직 내에
벌써 탐사자 씨가 처리한 임무에 관한 이야기로 한차례 떠들썩하답니다.”

그는 당신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부담스러운 눈빛이 다 전달돼요.
겨우 그의 말을 끊고 일에 관한 이야길 해보자고 하면, 그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본인 서류
가방을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밀어진 검색 서류봉투 하나.

조직원A : “다음 타겟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과연, 이번 타겟은 누구일까요? 지난번처럼 손쉬운 상대면 좋겠는데 말이죠—….

서류 봉투에서 종이 두어 장을 꺼내 첫 장부터 쪽 훑어봅니다.

응, 그래요. 이름은 KPC. 나이는 n 세. 직업은 킬러. 외모는… … …어라…? 왜 이렇게
얼굴이 익숙하죠? 봐요. 꼭 KPC를 닮았잖아요. ~~한 머리칼, ~~한 눈동자, 매끈하게 광이 나는
피부, 모양 좋게 휘어진 입술…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요, 탐사자. 이제 알겠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는 KPC를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나이, 외모… 모든 것이 당신이 아는,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사랑, KPC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다음 타겟은
KPC입니다! [이성 판정 (0/1)]

어라? 그런데... 온 서류에 적힌 정확한 정보들 중, 한 가지... 당신이 아는 것과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직업란이네요. 그곳엔 딱하니 '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으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KPC가 비록 해물 요리로 유명한 식당의 주방장이긴 하지만, 고작 생선을 손질하는 것을 두고 '킬러'라고 칭하는 건 아닐 테고... (KPC의 가짜 직업으로 개변해 주세요.)

설마 당신과 같은 '킬러'라는 뜻은... 에이!! 그럴 수 없죠. 그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심성이 따스한 사람인 걸요! 맞아요. 분명 오타일 거예요. 어쩌면 전산에 큰 오류가 일어나서 아예 생뚱맞은 사람을 타겟이라고 건네준 걸지도 몰라요. 바로 옆에 물어볼 사람이 있으니 물어볼까요?

Q. 그의 직업이 킬러가 맞는지.

조직원A : “저희 조직과 라이벌 관계인 조직의 에이스 킬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죽이는데 이골이 나서 눈 감고도 이마 정중앙에 총구멍을 뚫어낸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런 사람을 없애는 데엔 역시 탐사자씨만 한 킬러가 없겠죠. 믿고 있습니다.”

Q. 그는 내 배우자라 킬러일 리가 없다.

당신의 솔직한 고백에 조직원은 놀란 듯한 얼굴을 합니다. 하지만 곧 그 얼굴에 기쁨이 깃드네요.

조직원A :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탐사자 씨! 그가 라이벌 조직의 에이스 킬러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언제든 죽일 수 있도록 곁에 두시다니...! 역시 탐사자 씨에게 임무 맡기길 잘한 것 같아요. 모쪼록 평소와 같이 훌륭히 처치하고 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 큰 걱정은 없지만요.”

맙소사. 말이 안 통하네요, 이 사람...!

조직원A : “그럼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작게 묵례한 조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홀연히 나타났던 것처럼 슬며시 사라집니다.

시아에 들어오는 건 평화롭고 여유로운 한낮의 오후 풍경. 손안에 들린 건 당신이 죽여야 하는 당신의 타겟이자 배우자 KPC. 그 간극의 냉혹함이 당신의 손끝을 싸늘하게 얼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타겟을 지정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KPC가 킬러일 리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도, 산 적도 없다구요, 그는…!

탐사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싶나요?

(탐사자의 의향을 물어봐 주신 후 반응에 따라 적절히 출력해 주세요.)

- KPC가 킬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그래요. KPC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만 해낸다면, 조직도 더이상 애먼 사람을 죽이라고 등 떠밀진 않을 겁니다.
- KPC와 도망치겠다.
타겟을 데리고 도망이라니…! 꽤 획기적인 방법이네요. 좋아요. 그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조직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의 안위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당신이 지켜내는 것이 맞죠. 물론 KPC를 어떻게 설득할지는 당신의 몫이지만요.

결정했다면… 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KPC와 저녁을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Chapter 2】

집에 도착하자, 이미 식탁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먹기 좋게 구운 스테이크와 잘 익힌 가니쉬, 향긋한 소스가 뿌려진 싱싱한 샐러드. 식탁 중앙엔 예쁘게 불을 붙인 양초 장식도 놓여 있네요. 평소 이보다 간출하게 먹었던 저녁 식사를 생각해 보면 꽤 신경 쓴 티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KPC : “왔어? 어서 앉아. 음식 식겠다.”

각자의 자리에 나이프를 놓고 있던 KPC가 당신을 보며 생긋 웃습니다.

Q. 오늘 무슨 날인지?

- 아무런 날이 아니지만 그냥 오늘은 분위기를 내보고 싶었다.
(KPC 또한 타겟으로 탐사자의 정보를 건네받은 상태입니다. 이 집을 불태우고 도망갈 생각이므로, 이 집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느낌으로 꾸며 본 것입니다.)

의자까지 빼주며 극진히 에스코트해주는 다정한 KPC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킬러일 수가 있겠어요?

(식사를 하며 서로의 정체를 떠보는 아슬아슬한 RP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탐사자가 변명할 수 있는 질문들을 지어서라도 막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람을 의심하는 것도 좋고, 대인기능 판정을 적절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RP 예시>

- 오늘 탐사자 회사 근처로 외근이 있어서 갔었는데,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 회사에 탐사자와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탐사자라는 사람과 연결해 주더라. 마치 회사에 탐사자라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는 듯이….
- (탐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가게에 찾아가 봤는데, 문은 닫혀있고 쌓인 우편물에선 밀린 전기세 고지서 3개월치를 발견했다. 3개월이나 출근한답시고 나가서 실은 바람을 피웠나?
- (변명을 들으면) 알겠다, 큰 회사다 보니 전상상에 오류가 있었던 거겠지 싶다.
- (도망,이사 가자고 하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진정해라. 그런 큰 일을 갑작스레 진행할 순 없는 일 아니겠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

(어느 정도 대화를 마쳤으면, 잠시 화장실에 가는 척 사라져 주세요. 무기를 챙길 겸, 집안 곳곳에 기름을 뿌리러 간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KPC가 당신의 의자 뒤로 지나가며 어깨를 한번 꺾 주무르고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휴… 오늘따라 저 사람, 이상하네요. 평소엔 묻지도 않던 질문들을 다 하고….

콩닥거리는 가슴을 내리누르고 있을 그때, 식탁이 부르르- 떨립니다.

웬 진동이지? 하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면, KPC의 그릇 옆에 놓인 휴대폰이 깜박거리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온 모양이에요.

슬쩍 들여다보면,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가 보입니다.

[타겟은 처리했습니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느낌이 들며 우뚝 굳습니다. 타겟을 처리했냐니…? 너무도 익숙한 단어와 문장입니다. 당연하죠. 킬러인 당신이 술하게 듣던 말인걸요…! 얼음장처럼 얼어버린 시야 앞으로 당신이 받은 서류에 적혀 있던 단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KPC의 직업이 킬러라는….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라고 되뇌는 입술과는 달리, 통제를 벗어난 손은 KPC의 휴대폰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KPC가 킬러일리가…. 그가, 내 사랑이, 나만의 허니가 킬러일 수는…!

휴대폰을 켜자 곧장 뜨는 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늘 배경화면에 띄워놓던 결혼사진이 아닌… 타겟 프로필에 붙어있는 당신의 얼굴입니다. 오늘 당신의 타겟 프로필에서 보았던 KPC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머리회전이 재빠른 당신답게 모든 것을 신속히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과 그 라이벌 조직의 킬러 KPC. 서로의 조직이 상대 조직의 에이스 킬러를 죽이기 위해 각각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을…!

[지능 판정]

성공	그러고 보니 화장실에 갔다고 한 KPC가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마... 당신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챙기러 간 것은 아닐까요?
실패	그러고 보니 화장실에 갔다고 한 KPC가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마... 벌써 킬러로서 임무를 시작한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도 가만있을 순 없습니다. 설마 그가 당신을 죽이려 들겠나? 싶지만... 결혼생활 내내 킬러란 직업도 감쪽같이 속였던 KPC입니다.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 건 없죠. 적어도 방어 수단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식탁의 나이프를 챙기거나, 본인이 집에 무기를 숨긴 장소로 가 무기를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무기를 챙기러 이동했다는 가정입니다. 만약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린다면 KPC는 보이지 않고 관찰 판정으로 이상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급히 발소리를 죽여 방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속은 조급함으로 날뛰고 있지만, 노련한 킬러답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신속 정확한 손놀림으로 숨겨둔 버튼을 찾아 누르면, 책상이 마치 냉장고처럼 양쪽으로 열리고 금속음을 내는 3단 장치가 갈라집니다. 그 안쪽에 은은한 푸른빛이 켜지고, 질서 정연하게 놓여있는 총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톱툰이 잘 관리해 놓은 총신의 표면으로 반질한 광택이 흐릅니다.

무기를 챙기는 순간,

탕—!

당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간 무언가가 벽에 퍽, 하고 박혀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유리조각처럼 후드득 떨어져 내리는 벽면은 분명 탄흔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때, 문 너머로 KPC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KPC : “자기야♡ 아직 살아있어~?”

[이성 판정 (0/1)]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 중 대화가 가능하며, KPC는 도청기가 있을 것을 우려해, 가짜 죽음을 유도하고 도망갈 거란 사실만 빼고 다른 것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탐사자가 왜 자신을 공격하느냐고 묻는다면,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 불만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는 탐사자의 턴부터 시작합니다. 각 턴에는 한 가지 행동만 할 수 있으며, 무기를 소진하거나 채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턴을 소비해 다른 곳에 숨겨둔 무기를 가지러 가야 합니다. 탐사자,KPC 모두 신체 능력이 탈인간급이므로, 상대의 사격 판정에 회피 선언이 가능합니다. 공격 판정 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페널티 주사위 1개가 부여됩니다. 한 사람의 HP가 0~2가 될 때까지 전투가 지속됩니다. 공격 한 방에 HP가 0이 되지 않도록 피해량을 조절해 주세요. 탐사자가 아예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한다면 KPC를 기절시켜야 가능하다고 출력해 주세요.)

< 전투 중간 중간에 출력하는 지문 >

(각자가 정한 소중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개변해 주세요. 아이템이 깨질 때 관찰 판정으로 KPC의 슬퍼 보이는 표정을 묘사해 주셔도 좋습니다.)

1. 탕! 하고 발사된 탄환이 상대방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 쨍그랑! 하는 파열음을 유발합니다. 난데없이 깨지는 소리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면, 당신이 소중히 아끼던 그릇 세트입니다. 아, 저 그릇은 분명... 우리가 신혼여행을 할 적에 문양과 모양새가 고급스럽고 예뻐서 한참 바라보았지만 사치품이라는 생각에 지나쳤으나... 그 날밤 몰래 사들고 와 선물해 준 추억이 담긴 그릇이네요... 그 추억이 당신이 쓴 총에 의해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립니다.
2. 당신이 날린 주먹이 상대의 복부에 박힙니다. 하지만 방탄조끼라도 입고 있었던 모양인지, 딱딱한 감촉이 느껴지고... 하릴없이 부서져 버린 건 오히려 당신의 왼손 네 번째에 끼고 있던 결혼반지입니다...! 그것이 구부러지고 깨어지는 순간, 우리가 결혼반지를 고르며 세상 어느 커플보다 행복하게 웃었던 모습이 눈앞을 아른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반지처럼 깨어져 나가는 것에 울컥, 화가 날지도 모르겠네요. 소중하게 쌓아 올렸다고 생각한 사랑이 결국은 물거품보다 더 연약했다는 사실에...
3. 옆치락 뒤치락 주먹다짐이 오가는 와중에 당신의 힘이 그를 강하게 밀어냅니다. 순간 밀려나 비틀거리던 상대가 쿵-! 하고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앗, 저것은...! 무게만 500kg에 달하는 거대한 도자기 항아리...! 그것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기우뚱 기울어 상대방의 머리를 덮치려 합니다! 저것에 맞으면 즉사일 게 분명해요! (한 턴을 소비해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급히 달려가 떨어지는 도자기를 두 손으로 받칩니다. 상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했는지 함께 도자기를 받치고 다시금

원래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한창 싸우는 중에 집안 정리를 하는 꼴이라 모양새가 좀 우스워졌네요. 머쓱하게 헛기침하던 상대가 다시금 공격합니다. 당신이 위험한 도자기 근처에서 멀찍이 떨어지게끔 유도해서요.

서로를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죽이지 않는 지지부진한 싸움도 결국은 끝을 맞이하는 법이죠. 그야 그럴 것이 우린 탑클래스 킬러들이니까요. 양심상 더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싸움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신의 위로 올라탄 KPC가 싸늘한 총구를 당신의 이마에 가져다 댁니다. 그리고 당신의 총구 또한 하늘로 뿜어 KPC의 이마에 닿습니다. 서로의 공격 의사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몸에 밴 킬러의 실력이란 이럴 때조차 빛을 발하는 법이죠. 그 마음속은 얼마나 문드러져있는지 모르지만….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화륙- 하고 타오른 불씨가 커튼으로 옮겨 붙고, 곧 주변이 불길로 인해 후끈해집니다. 아아… 우리가 싸우는 통에 얹어진 식탁 위 양초가 집에 불을 지른 모양이네요.

(만일 KPC가 화염방사기를 무기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것으로 개변하셔도 좋습니다.)

누워있는 시선에 차츰 붉은빛으로 좀먹어가는 천장이 보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담겨있던, 추억이 녹아있던, 사랑이 스며든 집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급변한 관계처럼요.

(마지막인 듯 RP를 진행해 주세요.)

우리가 쏘아낼 탄환은 서로를 비껴가는 법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죠. 단 한순간에, 고통 없이 보내줄 수 있는….

KPC가 방아쇠에 건 검지 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는 것이 보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손가락도 동일한 속도로 서서히 구부려집니다.

잘 가요, 내 사랑.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거예요.

안녕.

타양—!

허공에 쏘아 올린 하나의 총성이 들려옵니다. 응? 하나라뇨…? 우린 분명 동시에 서로를 겨눴는데… 하고 위를 바라보면, 당신과 KPC를 덮쳐오는 거대한 그물이 보입니다. 사방에 무거운 추가 달린 금속 재질의 그물은 삼시간에 우리를 덮쳐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KPC : “무, 뭐야. 이게?!”

한껏 당황해하는 KPC의 모습을 보아하니 그가 계획한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선 끝에 깨진 창문이 보입니다. 아마도 저길 통해 그물총을 쏜 모양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과 KPC가 이곳에 사는지 알았던 거죠…?

[지능 판정]	
성공, 실패 상관 없이	문득 당신에게 타겟 프로필을 넘겨주던 조직원 A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가 갑자기 당신의 무릎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죠? …그때인가 봅니다. 당신에게 은밀히 위치 발신기를 붙인 건….

하지만 더는 파악할 시간도 없이, 파지지직-!! 하고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시야가 암전 되고 의식이 끊기고 맙니다.

【Chapter 3】

(둘의 HP를 전부 회복시켜 주세요.)

….

….

…자, …탐…, …탐사자!!!

당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와 함께 번쩍-! 눈이 떠집니다. 멍멍한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며
암전 되었던 눈이 빛을 머금습니다. 눈앞엔 텅 빈 창고 같은 방이 보입니다. 어두침침하기 짝이
없는 노출 콘크리트로 된 내부와, 굳게 닫힌 문. 똑, 똑,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싸늘한 체온과
벽에 부딪혀 웅웅 울리는 목소리.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보려 하지만, 결단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온몸이 의자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당신과 같은 모양새로 의자에 결박되어 있는 KPC가 보입니다.

KPC :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곳은?!”

조금은 우습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겠다고 살벌하게 싸우지
않았었나요? 그런데도 KPC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당신의 다친 곳을
찾습니다.

상태를 파악하려 더 자세히 둘러보면, 우리는 각자의 철제 의자에 굵은 밧줄로 동여매져 있습니다.
두 손은 의자 등받이 뒤로 결박되어 있고, 두 다리는 의자 다리에 각각 묶여 있습니다. 온몸을
격하게 들썩거리면 의자가 바닥에 고정된 것은 아닌지 조금은 움직여지지만... 결박을 풀지 않는
이상 탈출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그들의 등장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 둘 중 한 명은 당신이 속한 조직의 보스니까요!

보스1 : “하하... 죽기 전에 탐사자 씨가 이렇게 무력하게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의외라는 듯 웃는 보스와 그 옆에 선 낯선 이도 함께 미소 짓습니다. KPC를 보며.

보스2 : “공감해요. KPC 씨의 이런 비참한 꼴을 구경할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 말에 KPC가 어금니를 뿌득 갈며 얼굴을 일그러뜨립니다. 설마, 저 사람은 KPC 조직의 보스?

(두 사람은 각각 조직의 보스입니다. 진상에 대한 RP를 해주시면 됩니다.)

<RP 예시>

- 우리는 유일신 가타노토아 님을 추종하는 자들이며, 절대악 가타노토아 님의 힘을 되찾아 드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
- 그분의 힘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선 거대한 악의 에너지를 지닌 제물 두 사람이 필요했다.
- 강력한 신체 능력과 지성을 겸비하고 명령만 내리면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인성까지 갖춘 KPC와 탐사자가 제물로 제격이었다.
- 하지만 당신들을 죽일 수 있는 킬러는 서로가 유일했고, 때문에 우리 조직은 비밀리에 손을 잡았다.
- 그렇게 탐사자에겐 나노 위치발신기, KPC에겐 도청기를 붙여 행적을 지켜봤는데, 둘이 결혼한 사이라는 걸 알고 임무에 실패할 줄 알았지만... 당신들은 역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킬러답게 우릴 감동케 했다. 사랑하는 배우자더라도 가차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모든 조직원이 본받을만했다.

보스들은 껄껄 웃으며 썩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초를 서던 조직원이 들어옵니다.

조직원 : “3층에 제단을 올려 두었습니다.”

(KPC와 탐사자가 갇혀있는 곳은 2층입니다.)

보스1 : “음. 곧 의식이 시작될 것 같군. 세기에 다시없을 킬러인 두 사람에게 존경의 의미로, 서로 마지막 인사할 시간을 주도록 하지. 그럼, 이따 다시 보자고. 그땐 시체로서의 만남이겠지만. 하하!”

쾅! 하고 닫힌 문 너머로 그들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다시 이곳은 적막만이 들어칩니다. 가만히 고개를 푹 숙이고 낮은 숨을 내쉬던 KPC가 넋지시 묻습니다.

KPC : “...아까 왜 방아쇠 바로 안 당겼어? ...아니. 네 실력이라면 그전에도 날 충분히 죽일 수 있었잖아.”

무슨 애길 하나 했더니, 어이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본인은요? 그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을 세어 보면 열 손가락을 훌쩍 넘어가는걸요.

(화해 타임입니다. KPC가 계획했던 모든 진상을 말해주며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해 주세요!)

<RP 예시>

- 타겟으로 탐사자가 지명되었지만, 절대 죽일 수 없었기에 함께 조직에게서 도망칠 생각이었다.
- 하지만 우리 조직은 몹시 끈질긴 편이고, 무작정 도망갔다면 평생 쫓길 위험이 있었다.
- 우리의 결혼생활을 평생 도망자 신세로 점철하고 싶지 않았다.
- 때문에 둘이서 싸우다가 화재로 사망, 소실된 척하려고 했다.
- 조직이 나에게 도청기를 붙였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들이 속계꿈 둘이 싸우는 척을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도발한 것뿐이다.
- 나는 여전히 탐사자를 더없이 사랑한다.

실은 아직도 KPC가 킬러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믿기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꿈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이 킬러든, 아니든 무슨 상관일까요? 그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 답을 알아버린 때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일뿐이니까요.

탈출의 막막함에 시무룩한 입술을 물어뜯자, 갑자기 KPC가 공공거리며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현실에 미쳐 갑자기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걸까요?

(몸에 착용하고 있는 소중한 물건을 탐사자 쪽으로 내밀면, 탐사자의 도움으로 그 안에서 작은 칼날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서로의 결박을 풀면 됩니다.)

온몸을 옥죄는 밧줄이 풀려나자마자 KPC가 다가와 직접 당신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훑습니다. 어디 부러진 곳은 없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저린 곳은 없는지. 그렇게 확인이 끝나고서 말합니다.

KPC : “이 방에 탈출구는 저 문 뿐인 것 같아. 아까 잠깐 열렸을 때 봤는데 밖에 보초 2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 더 말 안 해도… 알지?”

당연하죠. 같은 전문가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보초를 제압하고 탈출하자는 얘기일 거예요. 물론 조금 어색한 감은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늘 혼자서만 임무를 수행했었는데… 마치 킬러 콤비가 된 듯한 느낌이라서요. 아니, 아니죠. 콤비라기보단… 그래요, 부부 킬러단이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앗! 감상은 나중에 하고…! 일단 탈출해 볼까요?

(방문은 건어차면 뜯기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건물 탈출구까지 처리해야 하는 보초는 방문 앞 보초까지 포함해 총 6~8명입니다. 보초를 쓰러뜨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무기를 주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재량껏 배치해 주세요. 서로 치명상을 당할 위기일 때, 건강을 영구적으로 1d3 깎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보초 스탯은 획득 가능한 무기의 피해량을 따져보시고 키퍼 재량으로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앞에 서있던 보초들을 쓰러뜨린 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탈취합니다. 누군가가 이 장면을 녹화했다더라면 한 편의 멋진 액션 영화를 보고 있다고 착각할 만큼 유려하고 능숙한 처리였습니다. 역시 세계 탑클래스 킬러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무엇보다 서로 죽일 듯 말 듯 아웅다웅할 때엔 몰랐는데… 불필요한 유혈 없이 깔끔하게 보초를 처리해 내는 KPC를 보자니 다시 한번 더 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고 보니 분명… 세상을 혼란케 할 수 있는 의식이 곧 시작된다고 했었죠? 3층에 의식 준비를 마쳤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곳은 2층입니다.)

KPC : “안 가?”

탄창 속 탄환 개수를 확인하고 다시 재장착하던 KPC가 멀뚱히 서 있는 당신을 보고 묻습니다.

탐사자,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대로 1층으로 내려가 바로 건물을 탈출해도 좋고, 의식을 방해한 뒤에 탈출해도 좋겠죠. 물론 후자는 위험부담이 좀 더 따르고 KPC를 설득해야겠지만요?

- 탈출 전, 의식을 방해하러 간다고 선언한다면

결국 당신은 그를 설득해 의식을 방해하고 나가자고 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일이라 처음엔 난색을 표하던 KPC는 당신의 간곡한 설득에 한숨을 내쉬며 따라줍니다. 얼핏 당신을 뒤따르는 KPC의 공얼거리는 혼잣말이 들립니다.

KPC :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더니… 진짜잖아?”

참나. 이 와중에도 사랑스럽게 구는 KPC 때문에 당신의 입가로 흐뭇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의식 장소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층에 거대한 홀로 보이는 공간에 각종 모독적인 그림과 휘장들이 가득 걸려있었으니까요. 그 중앙엔 마법진 같은 공간과 두 사람을 눕힐 수 있는 제단, 그리고 우리들의 보스들이 제단을 향해 무언가를 외고 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순 없지만 딱 봐도 수상쩍은 주문인 것 같네요!

(보스들을 죽여도 되고, 살인을 망설이는 탐사자라면 기절시키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의식을 망가트리는 방법으로는 곳곳에 놓인 햇불을 이용해 불을 지르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피를 담아둔 통을 부어 신성한 제단을 망가트리거나, 보초에게서 빼앗은 수류탄으로 터트린다거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도 좋습니다. 이후 건물을 빠져나갈 때 보초 4~6명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END > 부부 킬러단 데뷔…?!

완벽 무장한 보초들과 그들의 것을 빼앗아 익숙지 않은 무기로 하는 액션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요?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서로밖에 없는 막강한 킬러들인걸요!

우리는 총알이 빗발치는 아수라 속에서도 서로에게 등을 온전히 맡긴 채, 멋지게 싸워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급소만을 노려 불필요한 움직임을 억제하고, 그 눈부신 킬러들의 액션에 적들은 비명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한 채 쓰러졌죠.

그렇게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와보면 어두컴컴했던 내부와는 달리 한낮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 의식을 방해하지 않고 곧장 빠져나왔다면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을 그때, 주위로 갑자기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매표사, 함정인가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본체만체 지나쳐 건물 안으로 돌격합니다.

(조직원A가 몸 담고 있는 타 조직입니다. 사고도 집단이 된 조직들을 말살하는 데에 목적을 둔 조직입니다.)

...? 뭘까요? 워낙 적이 많았던 조직들이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다른 조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조직이 괴멸당하든 말든, 직장을 버린 우리와는 더이상 상관이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됐습니다. 더이상 우리를 뒤쫓아 올 무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니깐요.

- 건물을 빠져나가기 전, 한 명이라도 HP 0이 된다면

젠장...! 아무래도 서로가 잘못될까 신경 쓰다 보니 평소와 같은 실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고야 맙니다. 혼자라도 도망가면 목숨은 건질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놓고 목숨을 건진단들, 그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요?

결국 죽더라도 함께 죽을 각오로 쓰러진 상대방에게 총알 세례가 꽃히지 않도록 와락 쾅안습니다. 곧 온몸이 꿰뚫릴 고통을 예상하고서 두 눈을 질끈, 감은 순간.

두두두두-!!

날카로운 총성이 연속적으로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리둥절한 눈을 하고서 고개를 들면...

주위로 갑자기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쪽도 당신 쪽도 아닌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같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우리를 본체만체 지나치며 건물 내부에 있던 조직원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합니다.

...? 뭘까요? 워낙 적이 많았던 조직들이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다른 조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조직이 괴멸당하든 말든, 직장을 버린 우리와는 더이상 상관이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됐습니다. 더이상 우리를 뒤쫓아 올 무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니깐요.

겨우 의식을 붙잡고 있는 상대를 부축하고선 총성과 비명이 난무하는 건물을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그나저나... 돌아갈 집은 불타버렸을 테고, 전기구이로 납치당하느라 달리 챙겨 나온 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이를 어찌죠...?

당신이 방도를 강구하고 있을 때, KPC가 뺨을 멧쩍게 긁적이며 입을 엽니다.

KPC : “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새 집으로 들어갈래?”

새 집에 들어가자니? 설마 그가 당신 몰래 집을 샀다는 얘기인가요?

KPC : “실은… 우리 노후를 위해 XXX([신혼여행지](#))에 사둔 별장이 있거든. 킬러 일을 그만두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 말해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아무리 그래도 별장 같은 것을 당신과 상의도 없이 덜컥 사다뇨…! 이 사람, 캐면 캘수록 비밀 투성이었던 사람이네요! 물론… 당신도 별반 다를 건 없지만요.

그나저나 XXX는… 우리의 신혼여행지 아닌가요?

그 사실을 되묻자 KPC는 보기 드물게 붉어진 얼굴을 감추듯 돌리며 웅얼거립니다.

KPC : “그때 거기, 탐사자가 좋아했잖아. 그래서…”

맞아요. 분명히 그랬죠. 여기 놀러 와서 참 좋다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킬러 임무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한때가 좋아서 좋다고 했었을 뿐인 건데…! 그 한마디에 덜컥 별장까지 사버리다니!

정말이지… 킬러가 이렇게까지 사랑스러워도 될 일인가요?!

….

….

썩아아—, 썩아아—….

차분한 파도소리가 발 밑에서 밀려들어 왔다가 구르는 모래알과 함께 멀어지길 반복합니다. 투명한 바닷물이 새하얀 포말을 남기며 춤을 추고, 작은 조개껍질은 켜켜이 쌓여 파도에 스칠 때마다 청량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바다와 하늘 사이로 노을빛이 서서히 감돌고, 붉게 물들어가는 구름이 당신과 KPC가 들고 있는 칵테일 잔에 담깁니다. 비치체어에 드러누워 여유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일은 몇 날 며칠을 반복해도 쉽사리 지겨워지지 않습니다. 하기야, 오히려 총소리와 살육이 난무하는 킬러의 삶이 오만배쯤은 더 지겨우니까요.

KPC가 사두었다는 별장은 시내에서 동떨어진 외딴곳이라 해변에는 단 둘 뿐입니다. 신혼여행지에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로맨틱한 감정에 적셔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테죠.

KPC : “탐사자.”

당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면,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는 KPC의 눈빛이 보입니다.
그가 그때처럼 아스라이 웃습니다.

KPC : “...골라봐. 알코올, 댄스, 캔디. 어떤 게 좋아?” (첫 만남 때 건넸던 말을 동일하게 출력해 주세요.)

(잠시 알콩달콩 RP를 하다 보면, 조직원 A가 등장합니다.)

첫 만남 때의 분위기가 다시금 둘 사이의 공기에 섞여듭니다. 불꽃이 튀듯 타오르던 정열과 서로를
갖고 싶어 안달 냈던 조바심이 둘의 눈빛에 어리는 순간.

조직원A : “안녕하세요. 탐사자 씨, KPC 씨. 잘 지내셨나요?”

발치에 소리소문 없이 등장한 A가 노을빛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맛있는 곳에 안전가옥을
두셨다니. 역시 안목이 뛰어나시네요, 같은 말을 흘리면서요. 철컹, 철컹! 빛보다 빠른 움직임으로
그에게 충구를 겨냥하는 둘의 모습에도 A는 여유자작한 웃음을 흘립니다.

KPC :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A?”

KPC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어라? KPC가... 어째서 당신 쪽 조직원이었던 A를 알고 있는 거죠?
이를 묻자, KPC는 의아한 목소리를 담아 대답합니다.

KPC : “...무슨 소리야? 이 녀석은 우리 쪽 조직원이었는데...?”

여전히 싱긋 웃고 있는 A가 둘의 의문을 대신 풀어줍니다.

조직원A : “아아. 실은 두 조직에 들어가 스파이 노릇을 했답니다. 그때 건물로 들어가는 제 진짜
조직원들을 보셨을 텐데.”

조직원A : “음. 이유는... 두 분을 포섭하기 위해서랄까요?”

어리둥절한 둘에게 A는 검색 서류봉투를 각각 나누어 줍니다. 실처럼 가느다랗게 웃고 있는 그의
눈에 묘한 이채가 감돕니다.

조직원A : “전 직장에서 잘리셨으니, 이번엔 저희 조직과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떠십니까?”

이런..., 부부 킬러단 데뷔인가요?

END. <부부 킬러단 데뷔...?!>

KPC 생환, 탐사자 생환

의식을 방해하고 나왔다면 >

이성 회복 1d3

[브금 추천 목록]

Chapter 1

<https://youtu.be/9O5BUkwcwpQ>

<https://youtu.be/aw8bvCCqwqU>

Chapter 2

<https://youtu.be/KJHYf3w0cec>

부부 싸움

<https://youtu.be/mF-c0isDhiM>

Chapter 3

<https://youtu.be/Bh8nZwWDudA>

화해

<https://youtu.be/eqUYYIEFgcs>

전투

<https://youtu.be/Swf91OYdMWM>

ENDING

<https://youtu.be/jFpxB6vazqs>

조직원 A 등장

https://youtu.be/F_ppRiC2-4o

[시나리오 후기]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라이터 '백슈' 입니다 :)

추후 뽀이 꽃힌다면 후속작을 집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열린 결말로 마무리 되었습디만, 워낙 즉흥적으로 시나리오를 써내리는 편이라 확언할 수 없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23.02.27 추가 / 3월 중에 후속작 ♡킬링 달링♡으로 찾아뵐겠습니다 :D)

그래도 시나리오 내에서 사랑스러운 앤관개와 달콤살벌한 분위기를 온전히 즐기셨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후기를 남겨주세요! 보내주시는 후기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닳을 때까지 정독하고 있습니다!

[후기 및 피드백 링크](#)

감사합니다 :D